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 축제의 중심은 단연 동두천

동두천시, 락 음악의 부리에서
전국 대표 축제도시로 도약

락의 심장이 된다

제25회 동두천 락 페스티벌

9.12.(금)~14.(일)

동두천 신천교 하부 둔치

축제는
도시의 얼굴이자
경쟁력이다

대한민국 락 음악의 전통을 잇는
국내 최장수 락 페스티벌

본공연

9월 13일~14일

FT아일랜드, 노브레인

국내 외 인기 락 밴드 총출동

우정과 교류의 현장

제18회 한미 우호의 날 축제

9.27.(토)

동두천시 보산동 관광특구 야외무대

한국과 주한미군이 함께하는
이색적인 축제

싱어게인3 신해솔

힙합의 기리보이

트로트의 태진아

·지역 예술인 공연
·먹거리와 체험 부스 운영
·시민과 미군이 함께하는 친선 게임

밤하늘을 수놓는 상상력 공간

제22회 청소년 별자리 과학문화예술 축제 & 힐링콘서트

10.25.(토)

동두천시 종합운동장

경기도를 대표하는
청소년 별자리 과학문화예술 축제

과학체험 및 문화콘서트

·드론 장애물 경기 ·3D프린팅
·골드버그 장치 ·우주탐험
·워킹로봇 경진대회 ·VR

야간 천체관측
불꽃놀이
힐링 콘서트

▲9월부터 이어지는 올해 하반기 동두천시 축제 총괄 안내도. (그래픽=동두천시)

✓ 동두천시와 동두천관광특구 상가 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과 주한미군 간의 돈독한 우정을 나누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된다.

올해 축제에는 한미 양측 주요 인사와 시민, 미군 장병 등 2,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후 1시부터 지역 예술인 공연 및 오후 5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가 진행된다.

행사장에는 먹거리와 체험 부스가 상시 운영되며, 시민과 미군이 함께 참여하는 친선 게임, 그리고 다양한 문화 공연이 어우러져 오감을 만족시키는 축제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보산동 관광특구라는 장소의 상징성과 함께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강화해 축제의 실질적 과금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특구 내 상점과 부스 운영은 자영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외국인 관광객과 미군 장병이 어우러지는 이색적인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전략이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로는 동두천시 홍보대사 신해솔을 비롯해 힙합의 기리보이, 트로트의 태진아까지 세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오른다. 장르를 넘나드는 이들의 무대는 시민과 미군, 청소년과 청년 모두를 하나로 잇는, 그야말로 ‘열광의 밤’을 예고하고 있다.

제22회 청소년 별자리 과학문화축제

오는 10월 25일 동두천시 종합운동장에서 ‘제22회 청소년 별자리 과학문화예술 축제’가 힐링콘서트와 함께 찾아온다. 이 축제는 동두천시가 주최하고 사회단체 어수회가 주관하며,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

도시 정체성·지속성 좌우하는 필수 수단 자리매김
“올 하반기, 대한민국 축제 중심은 동두천” 자신감



▲어유소 장군 행차 재현 행사 모습. (사진=동두천시)

이고 일상에 지친 시민들을 힐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며 경기도를 대표하는 과학 문화축제로 자리 잡았다.

올해 축제는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총 12시간 동안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청소년과 시민을 맞이한다. 특히 행사 후 반부에는 불꽃놀이와 야간 천체관측이 어

우러져 깊어가는 가을밤을 흥성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형 과학 체험’이다. 드론 장애물 경기, 골드버그 장치, 워킹로봇 경진대회 등 창의성을 자극하는 활동은 물론, VR, 3D프린팅, 우주탐험, 공예, 별자리가면 만들기 등 다양한 콘텐츠가 준

비돼 있다. 천체 사진전, 과학 상상화 전시, 전차 탑승과 소방 장비 체험 등 안보·안전 분야 체험도 관심을 집중시킨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유관기관이 참여해 체험의 질을 높이고, 과학문화 소외 계층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아울러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문화공연과 초청 가수 무대도 준비돼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모두의 축제로 기대를 모은다.

제37회 소요단풍문화제 10월 팡파르

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10월 동두천 소요산에서 역사와 전통이 어우러진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 동두천시는 오는 10월 26일 일요일 소요산 야외음악당 일원에서 ‘제37회 소요단풍문화제 및 제16회 어유소 장군 행차 재현 행사’를 개최한다.

소요단풍문화제는 30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동두천의 대표적인 가을축제로 지역 역사인물인 어유소 장군의 승전 설화를 문화적으로 재해석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로 자리잡았다.

이번 축제의 핵심은 ‘어유소 장군 승전 행차 재현’이다. 소요산 입구부터 야외음악당까지 이어지는 이 행사는 조선시대 장군의 귀환을 연출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조선 왕실이 장군의 공을 치하해 토지를 하사하는 장면을 상황극 형식으로 재현하며, 어유소 장군의 위업과 당시 시대상을 생생하게 보여줄 계획이다.

행사 당일 식전 전통예술 공연과 함께 농악, 연극 등 전통문화 무대가 축제의 흥을 돋을 예정이다. 소요산 단풍길과 어우러지는 공연은 깊어가는 가을 정취 속에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덕 시장은 “올해 하반기 동두천은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다채롭고 역동적인 축제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민선 8기 출범 후 ‘락의 도시’를

넘어 ‘축제의 도시’로 거듭난 동두천의 변화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도시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새롭게 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동두천만의 축제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덧붙였다.

신석호 기자